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1년 9월 15일(수) 총 3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교통정책과	담당자	• 교통정책팀장 지원찬 ☎ 440-3851 • 담당자 조항용 ☎ 440-3852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추석연휴 대중교통 증회 운행 등 수송대책 마련

- 9.17~9.22, 고속·시외버스(1일 8회), 연안여객선(1일 12회) 증회 운행 -
-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활동 강화 -

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편의를 지원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올 추석연휴기간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시외버스 증회 운행 등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시는 이번 추석에는 인천가족공원 임시 폐쇄,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으로 귀성객이나 성묘객의 이동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시 대비 21.5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하지만, 연휴기간 동안 불가피한 이동이나 여행 등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.

먼저, 인천도시철도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 이용객이 평시 대비 약 30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감축 운행 없이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유지할 계획이다. 다만, 공항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공항철도는 이 기간 동안 평시 대비 1일 48회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.

추석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1일 총 8회 증회 운행하고, 연안여객선은 1일 12회를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. 다만,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창측 우선 예매 및 한 칸씩 띄어 앉기를 권고하게 된다.

또한, 차량 내 물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, 승객간 거리두기, 터미널 내 열화상 카메라 운영 및 진·출입로 동선 분리 등 이용객들간 접촉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.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.

현재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종사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.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운행 전·후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,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판매 등을 통해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도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직장 내 회식·모임·행사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,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운수업체와 기관에 전파했다.

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“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,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에 만전을 기하겠다” 고 말했다.

